

지역과 중국 고대 여성작가의 시사 작품 I *

- 山東省李清照와 四川省薛濤를 중심으로

윤혜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山東省과 李清照
 - 1) 물과 술의 고장 齊南
 - 2) 물의 사유
 - 3) 고향 생각
 - 4) 이청조와 관련한 산동의 유적지
3. 四川省과 薛濤
 - 1) 대나무의 고장 成都
 - 2) 풍요와 여유의 도시 成都와 완전함의 추구
 - 3) 설도시에 등장하는 사천의 지명과 지역
 - 4) 설도와 관련한 사천의 유적지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문학지리학의 시선으로 이청조와 설도의 지역 문학 공간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청조 사의 창작 동인이 산동의 물과 술이 담고 있는 ‘흐름’의 사유와 고향 땅을 토양으로 하는 ‘실존 의식’ 즉 참된 삶에 대한 갈구였다면, 설도 시 창작의 주요 동인은 풍요로운 성도 땅에서 결핍을 자각하는 작가의 이를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에 있었다. 또 지역 문학으로 이청조의 사가 南渡한 산동 문인들의 ‘실존 의식’ 혹은 ‘정체성 회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6341)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복에의 회구'라는 집단 정서를 대표하며, 특히 '흐름'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지역 문학으로 설도의 시는 풍요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타고났지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었던 사천 기녀의 '갈증'과 '처세'를 소재로 한다.

키워드: 중국여성문학, 시사문학, 인문지리, 이청조, 설도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어떤 공간에 속해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그 공간의 일부임을 끝없이 확인받는다. 장소는 그렇게 인간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는 잊혀 있다. 중국 고전문학에서도 작가가 살다간 공간에 대한 사유는 그간의 시간적 간극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종종 무시되어 왔다. 문학지리학¹⁾의 시선은 이러한 잊힌 부분을 조명하여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던 인간 삶의 일부를 들추어낸다. '인간은 결국 자신들이 놓여있는 위치가 허락하는 행위만 할 뿐'²⁾이라는 지리학의 시각은 그간 작가들이 살았던 장소에 대한 무관심을 새삼 환기시킨다. 이러한 장소 접근적 시각은 오랜 시간적 간극에도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는 장소를 주목하게 하고 작품에 담긴 고대 인간의 삶을 우리의 결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학지리학의 시선으로 그동안 무관심했던 고대 여성작가의 지역 문학 공간을 살펴보려 한다. 논문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집필될 예정이며 가능하면 다양한 성급 단위의 지역 문학 유산들을 골고루 다룰 예정이다. 우선 당·송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 薛濤와 李清照의 詩詞작품을 대상으로³⁾ 여성 문학 속에 드러난 지역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학지리학'이란 용어는 1907년 영국의 샤프라는 사람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개인 저서에 이 제목을 붙임으로써 처음 쓰였다. 1970년대에 들어 지리에 대한 인간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일단의 지리학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장석주, 『장소의 탄생』, 서울: 작가정신, 2006, pp.68~69.

2) 전중환·서민철·정의선,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p.30.

2. 山東省과 李清照

李清照(1084-1155?)는 山東省 齊南 歷城 柳絮泉 사람으로 학식 높은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16살에 趙明誠(1081-1129)과 혼인하여 南渡 전까지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山東省에서 지어진 그녀의 시사작품에는 이 지역의 자연 풍광과 문화가 잘 반영되어 있다. 오늘날 산둥성 齊南에는 이청조를 기리는 이른바 ‘清照文化’⁴⁾라는 지역문화 축제가 열리고 이청조기념관도 조성되어 있다. 이청조가 살아생전 술을 좋아했던 것처럼 이 지역 맑은 샘물로 만든 술 ‘清照酒’⁵⁾도 지역특산물로 인기가 있다. 그러면 산둥성 제남의 지역적 특징은 이청조의 시사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 ‘물’과 ‘술’, 그리고 ‘고향’이라는 키워드로 이청조의 시사문학작품의 지역문화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어 이청조의 문학 유산이 현재 어떻게 보존·활용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자.

1) 물과 술의 고장 齊南

이청조의 시사작품에는 객관 물상인 물과 술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山東省 齊南의 물이 많은 지형⁶⁾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술문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

3) 중국의 여성작가 중 지명도가 가장 높은 여성작가 2인을 우선적으로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설도와 이청조는 당·송대를 대표하는 여성작가이기도 하고 기녀와 규수로 신분적 대표성도 지닐 뿐 아니라 남긴 작품 수량도 시 89수와 사 45수로 비교적 많다.

4) 清照文化란 李清照를 대표로 하는 지역문화를 말하는데, 章丘지역의 샘(泉水)문화와 생태 원림(園林), 청조주(清照酒) 그리고 이청조의 詩詞 작품 속 문화자원 등을 의미한다. 盧娜 「淺析章丘清照文化地方課程資源的開發與利用價值」, 『鄒北經濟學院學報』13(10), 2016, p.120.

5) ‘清照酒’는 山東 百脈泉酒業有限公司의 주력 상품으로, 百脈泉의 샘물로 만들어 맑고 달면서도 향이 깊다. 뒷맛이 오래가는 특징이 있어 지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是採用百脈泉的甘醴泉水釀造的, 產品具有清澈透明、窖香濃郁、綿甜甘冽、回味悠長之特點, 在省都享有很高的知名度。) 百度百科 (baidu.com)(검색일: 2022.08.10.)

6) 齊南은 일찍이 ‘泉城’이라 불렸고, 물이 많아 ‘泉城明珠’라고도 불렸다. “泉水是齊南的靈魂으로 졸졸 흐르는 깨끗한 물이 이 북방도시에 신비한 기운을 더한다.” 張穎欣 「濟南大明湖的淵源及“泉文化”」, 『科技創新導報』(29), 2009, p.229.

는데, 그녀의 작품 「一剪梅」에서 ‘홀로 목란배에 올라탄다(獨上蘭舟)’, ‘꽃이 절로 떨어지고 물도 절로 흘러간다(花自飄零水自流)’라고 한 것과 아래의 「怨王孫」은 물이 많은 이 일대에서의 뱃놀이(泛舟)생활을 잘 보여준다.

「怨王孫」

湖上風來波浩渺。秋已暮、紅稀香少。水光山色與人親，說不盡、無窮好。
蓮子已成荷葉老。清露洗、蘋花汀草。眠沙鷗鷺不回頭，似也恨、人歸早。
호숫가에 바람이 불어오니 물결이 아득히 일고, 가을은 이미 깊어 붉은
꽃 드물고 꽃향기도 줄었네. 물빛과 산빛은 사람 가까이 있으니,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저 좋으네. 연밥은 이미 익고 연잎은 말라, 맑은 이슬에 씻
긴 부평초와 모래톱의 풀들. 모래 위의 물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떠나
가니, 원망스러운 듯 사람이 서둘러 돌아가네.

뱃놀이와 같은 의미 있는 경험이 발생하는 齊南의 섬과 호수에 대한 작가의 애착은 안정적인 실존감 형성으로 이어져 작가는 한 인간으로서 지적, 도덕적, 정서적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었을 것이다.⁷⁾ 뱃놀이에 대한 이청조의 언급은 南渡 후 浙江省 金華에 머물 때 지은 詞 「武陵春」 하편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청조는 금화에서 풍경 좋기로 이름난 雙溪를 언급하며 이곳에 작은 배 하나 띄어 뱃놀이할 수 있겠지만 작은 배가 자신의 시름을 견디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한다.

「武陵春」

… 聞說雙溪春尙好，也擬泛輕舟。只恐雙溪舴艋舟，載不動、許多愁。 듣기
로 쌍계의 봄이 아름답다니, 작은 배 하나 띄울 수 있겠지. 다만 두려운
것은 쌍계의 배가 내 많은 시름 견딜 수 있을까.

산동성 제남에는 100여 개의 섬물들이 모이는 ‘大明湖’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제남의 8경 중 3경이 모여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歷下秋風’으로 歷下亭⁸⁾에 부는 가을바람을 말하며 일찍이 杜甫가 북해 태수 李邕를 모시고

7) “사고, 지각, 의미의 조직화는 특정 장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서울: 논형, 2005. p.45.

이곳에서 연회를 열며 지은 「陪李北海宴歷下亭」이란 시가 유명하다. 두 번째가 바로 ‘明湖泛舟’ 즉 대명호의 뱃놀이인데, 5km에 이르는 호수에서는 예부터 뱃놀이가 유명하여 이름난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 뱃놀이를 하며 시를 읊었다.⁹⁾ 대명호는 이청조의 집에서도 멀지 않아 이청조 역시 종종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소개한 「怨王孫」이 대명호의 풍광을 묘사한 것이라 보는 학자도 있다. 3경 중 마지막은 ‘匯波晚照’로 대명호 물결에 비치는 저녁노을을 말한다. 만약 「怨王孫」에서 그려낸 것이 대명호의 풍광이 맞다면 이청조는 ‘가을바람’과 ‘저녁노을’ 그리고 ‘뱃놀이’를 묘사하며 사 속에 대명호 3경의 빼어난 풍광을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누각에서 물길을 바라보는 장면도 이청조의 작품에서는 빈번히 묘사되는데, 「一剪梅」에서는 ‘기러기 돌아갈 때 달은 서루에 가득하다(雁字回時, 月滿西樓)’¹⁰⁾라며 달 밝은 누각에서 눈앞에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언급하고, 「鳳凰臺上憶吹簫」에서는 ‘누각 앞에 흐르는 푸른 물만 내가 온종일 응시하는 뜻을 기억하겠지(記取樓前綠水, 應念我, 終日凝眸)’라며 흐르는 물만이 자신의 마음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수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꽃(荷花, 蓮子, 蓮蓬)과 연잎(藕葉), 수초(手草, 萍花) 등의 물과 관련된 경물도 빈번히 등장한다. 이외에 「如夢令」에서 ‘배를 돌린다(回舟)’ ‘힘껏 짓는다(爭渡)’ ‘갈매기, 해오라기가 놀라 날아간다(驚起一灘鷗鷺)’라고 한 것은 모두 물의 도시 齊南과 章丘 그리고 淄州일대의 장소를 묘사한 것이다.

이청조의 작품에는 술에 관한 언급도 다량 보이는데, 전체 사 45수 중 23수에서 술과 관련된 어휘가 발견된다. 여성작가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술에 대해 노래한 작가는 이청조가 유일할 것이다.¹¹⁾ 몇 작품을 예로 들어보면 「漁家傲」에서는 ‘금 술잔 가득 푸르스름한 술을 함께 하니 취하기를 사양하

8) 대명호에 떠 있는 섬 중 가장 큰 섬에 있는 정자이다.

9) 대명호의 뱃놀이를 직접적으로 읊은 시로는 元代 元好問의 七言古詩 「泛舟大明湖」가 있다.

10) 여기서 西樓는 淄州 서남쪽에 있는 누각으로 추정된다.

11) “自古以來, 寫酒之作確實很多。然而, 作爲一個女性, 反反復復寫酒的恐怕惟李清照一人而已。” 沈榮森, 「李清照酒詞淺探」, 『東岳論叢』 24(1), 2003, p.118.

지 마오(共賞金尊沈綠蟻, 莫辭醉)라고 하였고, 「玉樓春」에서는 ‘돌아와 술 드시려거든 지금 오시오(要來小酌便來休)’라고 하였다. 「如夢令」에서도 ‘몹시 취해 돌아오는 길을 잊었네(沈醉不知歸路)’, ‘깊이 잤으나 남은 술기운이 가시지 않았네(濃睡不消殘酒)’라며 술을 취하도록 마셨음을 말하였다. 이외에 「鳳凰臺上憶吹簫」에는 ‘술병(病酒)’이라는 어휘가 보이고, 「醉花吟」에서는 ‘동쪽 울타리에서 황혼이 지나도록 술을 마신다(東籬把酒黃昏後)’라고 하였다. 이청조는 특히 남도 후에 지은 작품에서 술을 자주 언급하는데 「浣溪沙」에서는 ‘깊은 호박 술잔 가득 채우지 마시오,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먼저 녹네(莫許杯深琥珀濃。未成沈醉意先融)’라고 하였고 「鷓鴣天」에서는 ‘마음 이끄는 대로 술잔 앞에서 취하는 것이 나오니, 동쪽 울타리에 노란 국화 저버리지 마오(不如隨分尊前醉, 莫負東籬菊蕊黃)’라고 하였다. 이처럼 빗놀이와 물길에 대한 묘사, 술에 대한 언급은 제남의 지역적 특징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청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데, 물이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이청조의 사작품에는 자연스럽게 물과 관련한 일련의 사유도 담겨 있다.

2) 물의 사유

물은 無爲, 즉 자연스러움의 표상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되 막히면 돌아가고, 좁은 곳 굽은 곳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물은 담기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체를 달리하며 어느 한 가지로 자신을 고정하지 않는다. 산동 제남의 샘물은 이청조에게 이러한 물의 사유를 갖게 했다. 끝없이 흐르는 물처럼 이청조의 마음도 흘러 부딪히는 대로 그리움이 되었다 쓰라림이 되었다 그 모습을 바꾸어 시사작품 속에 오롯이 담긴다. 그래서 이청조는 「一剪梅」 마지막 2구에서 그리운 마음이 ‘겨우 미간 아래로 내려갔나 했더니, 또다시 가슴 위로 떠오른다(才下眉頭, 却上心頭)’라고 하였고, 「武陵春」에서는 봄 시름은 다시 찾아와 ‘쌍계에 가벼운 배 띄우고 싶어도,

이 내 시름이 너무 무거워 거룻배에 실지 못할까 두렵다(也擬泛輕舟。只恐雙溪舴舺舟，載不動、許多愁。)라고 말한다.¹²⁾ 이청조에게 물은 곧 멈추지 않고 생겨나는 그리움과 슬픔의 눈물이었으며, 작가는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보내야 할 슬픔임을 너무 잘 알지만, 그 무게가 무거워 쉬이 떠나보낼 수 있을까 걱정한다.

이청조는 또 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환기하고 역사의 무상한 변화와 자신의 비극적 삶을 사유한다. 南渡 후 남편이 떠난 상황에서 지은 「鳳凰臺上憶吹簫」에서 이청조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鳳凰臺上憶吹簫」

香冷金猊，被翻紅浪，起來人未梳頭。任寶奩閑掩，日上簾鉤。生怕閒愁暗恨，多少事、欲說還休。今年瘦，非干病酒，不是悲秋。明朝，這回去也，千萬遍陽關，也即難留。念武陵春晚，雲鎖重樓。記取樓前綠水，應念我、終日凝眸。凝眸處，從今更數，幾段新愁。 황금사자 향로엔 향이 차갑고, 붉은 비단 이불은 어지러이 펼쳐져 있네. 일어나 머리도 빗지 않고 앉아 있네. 아무렇게나 놓인 경대는 열어보지도 않고, 해는 주렴고리 위로 오늘도 떠오르네. 이별의 고통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많고 많은 사연들 말하려면 끝이 없네. 근래에 몸이 야위는 것은 술병 때문도 가을 때문도 아니네. 내일 해 뜨면 돌아가야지. 이별가 천만번 불러 보아도 더는 머무르기 어렵네. 봄이 늦음을 생각하나, 이층 누각에는 구름만 자욱하네. 오직 누각 앞에 흐르는 푸른 물만 내가 온종일 응시하는 뜻을 기억하겠지. 응시하는 곳에 오늘 또 하나 더하네. 새로운 수심이.

자연의 시간은 계속하여 흘러가고 나라는 국세가 기울어 고향 땅을 잃고, 설상가상 부부는 이별 상황이다. 이청조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픈 인생사를 오롯이 지켜본 저 물만은 하루하루 쌓이는 마음속 슬픔을 알 것이라 말한다. 그

12) 이 구절에 대해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기도 했다. “중국시사에 수심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 것은 심심찮게 볼 수 있으나 이처럼 오르락내리락 움직이는 물체로, 어디에 담을 수 있는 물체로, 또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물체로 다양하게 비유한 것은 이청조가 유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승매(중국해양대학교), 「송대여성시인의 자아형상」, 김명희·정은임편저, 『동아시아문학과 여성』, 서울: 새미(국학자료원), 2005, p.152.

래서 물이 흘러가는 그곳을 이청조는 응시한다. 이외에 ‘흐른다’는 물의 속성과 이미지를 사용한 표현들도 빈번히 발견된다. 예를 들면 「漁家傲」에서 ‘은하수는 방향을 바꾸려 하고 천 척의 배는 춤추는 듯하다(星河欲轉千帆舞)’라고 하였는데,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 위를 다시 흐르는 배에 대한 묘사에서 ‘흐름’에 주목하는 이청조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의 속성은 삶에 대한 이청조의 자탄으로도 드러나는데, 「蝶戀花」에서 ‘봄이 가듯 늙어가는 사람이 가련하다(可憐人似春將老)’고 하였다. 또 이청조는 「一翦梅」에서 ‘꽃은 절로 흩날려 물길 따라 흘러간다(花自飄零水自流)’라고 하였는데, 남편을 물에 자신을 낙화에 비유하여 물위를 떠다니는 낙화처럼 남편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3) 고향 생각

실존공간에서 집이 있는 장소는 의미 속에서 경험되는 정체성 토대의 공간이며, 의미의 심원한 중심이다. 그러므로 고향으로의 회귀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오랫동안 끈질기게 고착화되어왔다.¹³⁾ 아래의 「如夢令」사는 이청조가 고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품 속의 溪亭은 이청조의 고향으로 알려진 齊南 歷城 柳絮泉의 동북쪽에, 그리고 大明湖의 서남쪽에 위치한 정자로,¹⁴⁾ 북송시기 徐正權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⁵⁾ 아래의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는 溪亭과 灘, 藕花, 鷗鷺는 모두 이청조의 고향 경물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향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의 유대,

13) 따라서 장석주의 『장소의 탄생』에서는 집을 갖지 못하는 인간은 세계 내에서 실존의 의미 거점을 박탈당하고 떠도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장석주, 전개서, p.140.

14) 溪亭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溪亭이 溪河의 정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명이라는 것이다. 徐北文의 고증에 따르면 溪亭이 바로 溪亭泉으로 溪亭泉은 珍珠泉 동쪽에서 10m가 안 되는 지점에 있으며 珍珠泉과 합류하여 大明湖와 연결된다.

15) 道光 『濟南府志』卷六「山水二」: “溪亭泉在北珍珠泉東。”溪亭爲北宋徐正權所建。徐有富, 『李清照泛舟詞之比較』, 『名作欣賞』(31), 2019, p.111.

고향의 언어, 풍습 등과 결부되어 작가의 내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如夢令」

常記溪亭日暮，沈醉不知歸路。興盡晚回舟，誤入藕花深處。爭渡，爭渡，驚起一灘鷗鷺。언제나 기억나는 것은 溪亭에서 해가 저물고, 몹시 취하여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한 일. 흥이 다하여 늦게 배로 돌아가는데, 길 잘못 들어 연꽃 우거진 곳으로 들어간 일, 또 빠져나가려고 애쓰다 모래사장의 물새들(갈매기와 해오라기)를 놀라게 한 일.

南渡 후 이청조에게 고향 땅 제남은 빼앗긴 국토이자 행복한 추억의 장소였다.¹⁶⁾ 즉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 간 따뜻한 유대와 원초적 정서, 그리고 인격이 형성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청조는 고향 방향에서 날아오는 기러기에 고향을 매개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¹⁷⁾ 처음 보는 기러기가 고향에서 왔다는 인식은 인격적 연대에서 오는 기쁨을 가져다주었을 것이다. 이는 남도 후 자신을 ‘나그네’(愁損離人) 「添字醜奴兒」로 형상화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청조에게 고향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 지각, 정서들이 형성된 원형적인 공간으로 자신의 실존을 향유하는 장소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넘어 실존의 공간에서 뿌리 뽑힘, 즉 추방을 의미했다. 그 결과 이청조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으려 발을 내리고 또 술을 마시고, 그마저도 어려울 땐 상상과 꿈을 통해 그 상실감을 해소하려 한다.

「永遇樂」

……不如向、簾兒底下，聽人笑語。…… 차라리 발 내린 창가 아래서 남들 즐기는 소리나 들으리.

16) “물총새 작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드문드문 연잎에는 금빛이 녹아드는데, 예전 날씨 예전 옷 그대로건만, 오직 마음속 정한만 옛집에 살 적 같지 않구나(翠貼蓮蓬小，金銷藕葉稀。舊時天氣舊時衣。只有情懷不似，舊家時。)” 「南歌子」

17) “기러기 지나가니 마침 마음이 아프네, 분명 예전에 보았던 그 기러기인 것이지(雁過也，正傷心，却是舊時相識。)” 「聲聲慢」

「菩薩蠻」

…… 故鄉何處是。忘了除非醉。…… 고향은 어느 쪽이었나? 잊으려면 술을 마셔야지.

「漁家傲」

…… 九萬里風鵬正舉。風休住，蓬舟吹取三山去。…… 구만 리 부는 바람에 봉새가 날아오르니 바람은 멈추지 말라. 내 배 三山에 도착할 수 있게.

객지를 떠도는 이청조에게 고향을 떠난 낯선 환경은 곧 실존에 대한 도전 을 의미했다. 삶의 의미 거점을 상실한 이청조는 스스로의 삶을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대신 피동적으로 주조되어 버리는 삶에 내몰린다. 이는 작가의 실존을 위협했고, 그래서 이청조는 억누를 길 없는 회한과 처참함을 사 작품 속에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다.

「聲聲慢」

尋尋覓覓，冷冷清清，悽悽慘慘戚戚。……三盃兩盞淡酒，怎敵他、晚來風急。雁過也，正傷心，卻是舊時相識。…… 찾고 찾고 또 찾아도, 차디 차고 차디찰 뿐, 이 마음은 슬프고 또 슬프구나 …… 맑은 술 두어 잔을 마셔 보건만, 어찌 건디리 저녁녘의 거센 바람을? 기러기 지나가니 마침 마음이 아프네, 분명 예전에 보았던 그 기러기인 것이지 ……

이청조가 작품에서 말한 끝없는 상실감과 쓸쓸함은 모두 고향을 떠나 온 것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다시 작가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현실에 압도되어 자아정체성을 상실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오는 고립과 피로감이 회한과 슬픔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 고향으로 상징되는 기러기의 존재는 작가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지 않은 참된 삶에의 갈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이청조와 관련한 지역은 산동성 제남 외에도, 남도 후에 머물렀던 南京과 杭州도 있지만 이청조의 시사작품에 표현된 장소와 사유는 대다수 남도 이전의 생활공간인 제남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전통문학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조명을 받았던 여성작가인 이청조의 지

역 문학적 특징을 가장 먼저 살펴보았다.

4) 이청조와 관련한 산동의 유적지

산동성에는 이청조와 관련한 유적지가 네 곳이 있는데, 바로 濟南市的李清照紀念堂, 章丘區의李清照故居, 青州의李清照紀念祠¹⁸⁾ 그리고 이청조를 모시는 사당인 藕神祠이다.

(1) 章丘 百脈泉公園 내李清照故居 清照園

清照園은 百脈泉公園의 서북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百脈泉이, 동쪽으로는 繡江河가 흐르고 있다. 총면적은 18,000m², 1997년 5월에 정식으로 관광객에게 개방되었다. 清照園의 정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문 앞으로는 버들과 대나무가 푸르다. 長廊에는 중국의 저명한 인물인 歐陽中이 쓴 “李清照紀念館” 현판이 가로로 걸려있다. 내부에는 吟風榭·文書齋·漱玉堂·海棠軒·燕寢凝香·碑廊·易安樓 등의 15개 건축물들이 있다.

(2) 齊南 趵突泉公園 내李清照紀念堂

李清照紀念堂은 趵突泉公園 내 漱玉泉 북쪽에 있는데 면적은 4000m² 정도이고 1959년 原丁公(丁寶楨)祠터에 처음 건축되었다가 1999년 대규모로 중축하였다. 기념관에는 이청조의 일대기를 간략히 소개한 글 ‘一代詞人李清照’가 붙어 있고, 본당인 漱玉堂에 들어서면 백색의 이청조 석상이 놓여있다. 漱玉堂 양 측면으로는 郭末若이 쓴 楹聯도 볼 수 있는데 이청조의 일생을 잘 개괄한다.

“대명호반 표돌천변 옛집 버드나무 깊이 드리운 곳, 수옥집과 금석록에

18) 명 이후에 이청조가 거쳐 갔던 4개의 도시 章丘·齊南·青州·金華에 이청조기념관이 세워졌다. 青州의李清照紀念祠은 青州古城 서문 밖의 洋溪湖 근처 範公亭公園 안에 있는데 1993년 지어졌다. 면적은 3,000m² 정도이며 내부에는 歸來堂·金石齋·易安室·人傑亭·詞廊 등의 건축물이 있다.

후주 유풍을 이은 文材가 담겼네(大明湖畔故居趵突泉邊在垂楊深處，漱玉集中金石錄里文採有後主遺風。)”

위의 대련에서 상련은 이청조의 고향 집의 위치를 말하고, 하련은 그녀가 남긴 문학적 업적을 칭송하고 있다. 남북으로 나뉜 이 기념당의 동쪽은 다시 회랑으로 이어지고 서쪽은 문으로 이어진다. 북쪽은 작은 집 하나가 있는데 ‘易安舊居’라는 편액이 걸려있다. 이곳에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청조 가족의 모습이 밀랍 인형으로 전시되어 있다.

(3) 藕神祠

藕神祠는 1998년 齊南 大明湖 동북쪽에 세워진 사당으로, 嚴薇青의 『濟南瑣話』에는 清代 濟南 文人들이 藕神祠의 붕괴를 슬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藕神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이때부터 제남 사람들은 이 지역의 걸출한 여성작가 이청조를 藕神으로 삼고 그녀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명호의 藕神祠와 이청조를 藕神으로 모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외에 이청조와 관련한 지역문화 유산과 여러 기사들을 모아 놓은 사이트 淸照網(www.liqingzhao.cn)이 2019년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 사이트에서는 이청조의 족적을 따라 齊南의 章丘, 開封, 靑州, 南京, 金華, 杭州로 나누어 작가와 관련한 정보를 다량 제공하고 있다.¹⁹⁾ 이청조와 관련한 산동의 고적지들은 최근에 문화사업자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장소들은 단순히 유적지라는 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무엇보다 이 장소들은 이청조라는 여성작가의 삶의 서사성을 간직한 공간이자, 샘의 도시 산동이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그 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²⁰⁾

19) 이외에 이청조의 시기별 족적과 관련 대표 사작품을 표시한 영상콘텐츠로는 다음 링크를 참조바란다. 【古人跑圖】第三季，千古第一才女李清照 <https://www.youtube.com/watch?v=vdmTXUOP5UY> (검색일:2022.02.10.)

3. 四川省과 薛濤

다음으로 문학을 매개한 인생을 살았던 唐代 기녀 薛濤와 사천의 지역 문학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五代 陶穀(903~970)의 『清異錄』 卷下 「文用」 에는 “촉지방에는 문학 여성이 많았는데, 풍토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²¹⁾ 라는 기록이 있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천지역에는 예로부터 여성 문학가가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설도의 명성이 가장 높다.

설도(768-832)의 자는 洪度, 成都의 樂妓이다. 원래 長安의 양가집 규수였으나 아버지 薛郢을 따라 成都로 이주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6세에 劍南四川節度使幕府 소속의 樂妓가 되었는데 용모가 수려하고 시재가 뛰어나 고관대작들과 자주 교류하였다. 元稹, 白居易, 杜牧, 張籍, 王建, 劉禹錫 등 당대 이름난 시인 20인과도 문학적 교류가 있었다.²²⁾ 말년에는 성의 서북쪽인 碧鷄坊에서 살았다. 문집으로는 북송이전 蜀刻본인 『錦江集』 5권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까지 전해지지는 않으며 『全唐詩』 에 설도의 시 89수가 실려 있다. 당 이전의 여성작가 중 남긴 작품 수가 가장 많으며, 1981년 四川人民出版社에서 출판한 張蓬舟箋注의 『薛濤詩箋』 을 저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국내 서적으로는 2012년 출판된 류창교의 역해서 『완역 설도시집』 이 있다.

1) 대나무의 고장 成都

사천지역은 예로부터 ‘하늘이 내린 곳간(天府之國)’이라 하여 산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났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걸출한 문인들도 많

20) 오늘날 이 고적지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문화콘텐츠로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지는 향후 연구 「중국 고대 여성 시사작품의 지역 문학 콘텐츠로의 활용방안」 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려 한다.

21) 曹正文, 『중국여성 문학의 숲을 거닐다』, 조성환역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6, p.103.

22) 齋藤茂, 『妓女與文人』, 申荷麗譯, 北京: 商務印書館, 2011, p.86.

은데 고대 문인 중에는 李白과 杜甫, 蘇軾이, 현대 문인 중에는 巴金과 郭沫若 등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²³⁾ 설도는 四川에서 한평생을 살았는데 四川의 지역 풍광은 설도 시의 주요 소재였다. 四川은 무엇보다 대나무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데 온화한 기후로 대나무가 자라기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탓에 사천지역은 대나무숲뿐 아니라 대나무 상품과 요리가 전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²⁴⁾ 일찍이 白居易는 『養竹記』에서 대나무는 네 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뿌리가 단단하여 뽑히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성질이 곧아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속이 비어서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마지막은 마디(節)가 있어 정절(貞節)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사천 땅의 대나무도 설도에게 그런 의미를 지녔던 것일까? 그녀의 시작품에 등장한 대나무에 설도가 이입한 욕망과 감정은 무엇인지 아래의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자.

「酬人雨後玩竹」

南天春雨時, 성도에 봄비 내릴 때,
那鑑雪霜姿. 눈과 서리 자태 어찌 이와 비교할까?
衆類亦雲茂, 못 초목들 또한 구름처럼 울창하나,
虛心寧自持. 어찌 빈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킬까?
多留晉賢醉, 진나라의 현인들 술에 취해 여기에 머물렀고,
早伴舜妃悲. 일찍이 순임금의 두妃도 대나무와 함께했지.
晚歲君能賞, 나이 들어도 이 대나무들 감상할 수 있다면,
蒼蒼勁節奇. 푸르디푸른 절개를 간직할 수 있으리.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대나무는 울창함뿐만 아니라 마음을 비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깨끗한 모습으로 작가가 삶을 대하는 자세와 닮았다. 설도는 굴욕과 고통의 감정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던 인물이다. 그러나 자신의 재능

23) 20세기 이래 중국 문학계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고향을 보면 江蘇, 浙江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작가를 배출한 곳이 바로 四川이다. 고려대중국학연구소, 『중국지리의 즐거움』, 서울: 차이나 하우스, 2017, p.212.

24) 劉洪志·賈玲利·杜宇, 「四川古典園林中的竹文化研究」, 『中國城市林業』 14(5), 2016, p.41.

에 대한 자신감과 뛰어난 미모는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부귀를 여전히 욕망하게 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꼳꼳하게 솟아오르는 대나무에 대해 설도는 애정을 느낀다. 대나무는 사천 성도 땅에서 늘 보이는 경물일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늘 그 자리에서 푸르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으니 설도가 추구하는 자아상을 대변한다. 설도가 성도의 대나무에서 이 같은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은 경험적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보려는 쇄신의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녀를 아꼈던 韋臯로부터 내쳐지고 쓴 아래의 시에서 설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데²⁵⁾ 대나무가 지닌 꼳꼳함에 유연함을 더하는 작가만의 재기가 돋보인다.

「竹離亭」

翦鬱新栽四五行, 뻑뻑하게 새로 심은 대나무 내뿜 줄
常將勁節負秋霜. 늘 곧은 절개로 가을 서리를 담고 있네.
爲緣春筍鐵牆破, 봄 죽순이 담장을 뚫고 나와 망가뜨리니
不得垂陰覆玉堂. 옥당에 그림자 드리우지 못하게 되었네.

위의 시에서 대나무는 곧은 절개와 가을 서리를 이겨내는 강한 힘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그 성정 때문에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강인한 모습의 대나무에 자신을 이입하면서도 이를 크게 부정하지 않는 선에서 담장을 무너뜨린 실수를 인정하는 설도는 꼳꼳하여 부러지는 대나무가 아니라 곧은 절개를 지닌 대나무의 가치를 충분히 긍정하면서도 때로는 실수도 하는 대나무의 유연한 특성을 새로 만들어 낸다. 즉 자신을 낮추고 자책과 자조의 어기를 사용해 순종의 의사를 드러내면서도²⁶⁾ 대나무가 가진 꼳꼳하고 절개 있는 특성을 해

25) 설도 나이 18살 때 節度使로 부임해 온 韋臯(746-806)는 그녀를 몹시 아꼈다. 그러나 그녀로 한창 명성을 쌓아가던 20살쯤 설도가 잘못을 범하고 위고의 노여움을 사 松州로 쫓겨난다. 송주에서 설도는 「竹離詩」를 지어 위고에게 용서를 구한다. 누구로부터 내쳐졌는지에 대해서는 韋臯라는 설도 있고 元稹이라는 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張逢舟의 의견을 따라 위고로 본다. 宋致新, 『長江流域的女性文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p.101.

26) 宋致新은 「竹離詩」에 대해 전제주의 폄박에 굴복하는 여시인의 심리상태를 보여주는 시이며, 「竹離詩」에서 사용한 비유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경물, 주인과 도구의

치지 않는데 그야말로 설도의 자아상을 그대로 담아내는 경물이라 하겠다. 즉 3~4구의 망가진 담장에 대한 자조는 실은 좌절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설도의 곳곳한 의지와 관련 있다.²⁷⁾

이렇게 설도는 끝없이 펼쳐진 사천의 대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땅을 뚫고 나오는 어린 죽순의 곳곳함에서 삶의 희망을 읽어내고, 그녀가 교류했던 남성들에게서 굴욕과 배신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는 대나무처럼 묵묵히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간다. 대나무가 그동안 많은 문인들에 의해 ‘은거’와 ‘고고함’의 이미지로 읽혔다면 사천 땅 어디서든 자라나는 대나무에서 설도는 희망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읽어낸다. 어쩌면 언제 어디서건 볼 수 있으며 늘 푸르고 곧은 모습을 하고 있는 대나무를 보고 자라면서 설도의 곳곳함이 배양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천지역과 대나무는 설도만의 정서와 인격을 키워낸 촉매적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천 성도라는 지리적 공간이 설도 시에서 장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작가에 의해 잘살아보려는 실존의 중심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²⁸⁾

대나무 외에 설도의 말년 정체성을 대변하는 成都의 경물로는 국화가 있는데, 설도는 말년에 浣花溪에 은거해 살면서 스스로를 국화에 비유한 바 있다. 설도는 「浣花亭陪川主潘相公暨寮同賦早菊」이라는 작품에서 가을날 동쪽 율타리에 핀 국화는 이슬과 서리를 머금고 있으며 재주와 쓰임이 많아 잡초들

관계인 것은 당시의 통치자의 눈에 기녀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설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다. 상계서, p.104.

27) 앞서 먼저 언급한 ‘열 가지 떨어짐에 대한 시(十離詩)’에서 10가지 경물(개와 주인, 붓과 손, 말과 마굿간, 앵무새와 새장, 제비와 제비집, 구슬과 손바닥, 물고기와 연못, 송골매와 깍지, 대나무와 정자, 거울과 경대)을 들어 잘못과 초래된 결과를 스스로 하나하나 나열하는 설도의 시상 전개 역시 자신의 내쳐진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관련 있다.

28) 지리적 공간이 장소로 탄생한다는 것은 이 공간이 실존의 중심성을 명확한 형태로 드러내 높은 ‘심상성(imageability)’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이러한 실존공간과 경물에 상징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과의 정서적, 실존적 유대를 강화하며 더 큰 도덕의 가능성과 의미의 맥락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이 공간은 다시금 장소로 재탄생한다. 장석주, 전계서, pp.124~125.

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한다. 또 국화주로 연회에 사용되어도 승냥이와 이리를 두려워하진 않는다는 표현에서 국화를 자신의 자화상으로 설정하고 浣花溪를 자신의 말년 삶을 은거할 장소로 택해, 쓸모 있으면서도 정갈하고 절개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풍요와 여유의 도시 成都와 완전함의 추구

성도는 예부터 사계절 온화하여 겨울에 따뜻하고 강수량도 많아 풍요로운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이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여유를 즐길 줄 알았다. 설도가 살았던 시기는 安史의 亂 이후이나 長江유역은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기에 ‘天府之國’으로 불리던 蜀지방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번영하였다.²⁹⁾ 설도는 이러한 완전한 도시에 불완전한 여인으로 존재했다. 가족이 없었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남편도 없었다. 당연히 자식 또한 없었다.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에서 설도는 끝없이 완전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꿈꾼다. 성도는 기녀였던 설도가 결핍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존재했고,³⁰⁾ 이 완전함에 대한 추구는 고난 속에서도 설도의 삶을 지탱하게 하였다. 설도시는 그러한 욕망의 과정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아래의 작품은 이 시절 완전한 가정을 꿈꾸는 설도의 소망이 잘 담겨 있다.

「池上雙鷗」

雙棲綠池上, 새 한 쌍 깃든 푸른 연못가

29) 四處地處沃野千里的平原, 既是唐朝與四南少數民族交界的邊境, 又是國內動亂時王公貴族避禍迴旋的大後方, 戰略地位非常重要。… 薛濤生活在安史之亂以後, 那時, 黃河流域的經濟受到了嚴重破壞, 但長江流域並未受到戰爭太大影響, 尤其是素被稱爲“天府之國”的蜀中, 經濟仍然繁榮。宋致新, 전게서, p.99.

30) 설도의 시 「送鄭資州」는 송별시인데 사천의 비 내리는 어두운 峨眉山 아래 강가를 배경으로 떠나가는 남편을 전송하는 羅敷를 그려낸다. 나부는 古樂府에서 절개 있는 정숙한 여인을 상징하는데 그러한 나부에 초점을 맞추어 마무리되는 시상 전개에서 남편이 없어 지켜내야 할 절개가 없는 설도의 결핍감을 느낄 수 있다.

朝暮共飛還。 온종일 함께 날아갔다 돌아왔다 하네.
 更憶將雛日, 장차 태어날 아기새 생각하며,
 同心蓮葉間。 한마음으로 연잎 사이를 노니네.

이 작품을 읽으면 연못가의 새 한 쌍을 보면서 부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설도의 모습이 떠오른다. 채우고 싶은 결핍이 성도 땅 자연 경물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³¹⁾ 위의 시처럼 ‘同心’을 추구하는 설도의 갈망이 담긴 작품은 또 있다. 설도의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春望詞」에서는 꽃이 피면 ‘함께 감상하고(同賞)’, 꽃이 지면 ‘함께 슬퍼할(同悲)’ 사람을 갈망하고, 끝내는 사랑하는 이와 ‘같은 마음(同心)’으로 맺어지길 바란다.

「春望詞」四首

花開不同賞, 꽃이 피도 같이 즐길 이 없고,
 花落不同悲。 꽃이 저도 함께 슬퍼할 이 없네.
 欲問相思處, 그리운 그대 있는 곳 묻고 싶은데
 花開花落時。 때맞춰 꽃들만 피고 지네.

攬草結同人, 풀잎 따서 한 마음 엮어
 將以遺知音。 내 님께 보내려 하네.
 春愁正斷絕, (그러나) 봄 시름은 (동심초) 끊어버리고,
 春鳥復哀吟。 봄 새가 다시 와서 슬피우네.

風花日將老, 바람에 꽃잎은 나날이 지고
 佳期猶眇眇。 좋은 날은 아득하네.
 不結同心人, 그대와 한마음으로 맺어지지 못하고

31) 설도의 이러한 욕망은 李郎中과의 이별시 「別李郎中」에서도 드러나는데 설도는 이 부부를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는 봉황과 황새에 비유해 묘사한다. 이낭중이 아내와 사별한 것을 오동나무꽃이 지고(花落梧桐) 봄새가 황새와 이별한 것(鳳別凰)으로 표현하였고, 또 이낭중을 潘岳에 비유하여 아내를 애도하는 마음이 깊은 애처가로 그려낸다.(安仁縱有詩將賦, 一半音詞雜悼亡) 아내와 사별한 이낭중을 위로하는 시이나, 부부간의 정이 두터웠던 이낭중 부부에 대한 설도의 부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외에 「鴛鴦草」에서는 꽃봉오리가 둘씩 서로를 향해서 핀다는 원앙초의 앙증맞고 다정한 모습을 묘사해(綠英滿香砌, 兩兩鴛鴦小) 남편이 없는 자신의 결핍을 자각하기도 한다.

空結同心草。 헛되이 동심초만 맺네.

那堪花滿枝, 어찌하나 가지 가득 피어난 꽃들
 翻作兩相思. 서로 그리는 마음만 일으키네.
 玉箸垂朝鏡, 눈물이 아침 거울 위로 떨어지는데
 春風知不知. 봄바람은 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한 사람의 여인으로 정착하여 보통 가정을 꾸리고 싶은 설도의 욕망은 그녀의 시 「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녀는 매미를 빌어 그 소리가 한꺼번에 울리는 듯하지만 각자 한 가지에서 나는 것이라 말한다.

「蟬」

露滌清音遠, 이슬에 씻은 듯 맑은 소리 멀리서 들려오고,
 風吹數葉齊. 바람이 불어와 여러 잎새를 가지런히 하네.
 聲聲似相接, 소리소리 이어지는 듯 하지만,
 各在一枝棲. 각자 한 가지에 깃들어 있네.

작품에서 군자를 상징하는 매미³²⁾에 자신을 비유한 것도 절묘하고, 떼지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각각의 가지에 깃들어 나는 것이라 말한 점은 더욱더 설도의 욕망을 잘 드러낸다. 즉 이러한 표현에서 설도가 자신의 충정을 앞세워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온전한 가정을 꾸릴 것을 희망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도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다. 설도는 노년에 浣花溪를 떠나 碧鷄坊(지금의 成都 金絲街)근처로 거처를 옮겨 吟詩樓를 세우고 홀로 마지막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64세로 생을 마감한다. 설도에게 성도의 여러 경관과 경물들은 불완전한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희망의 공간이었다. 때맞춰 피어나는 꽃들도, 짝지어 오르내리는 새들도 그녀의 가슴에 끝없이 희망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기녀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설도는 언젠간 행복을 이룰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 시속에 드러난 완전하고 아름다

32) 일찍이 曹植은 「蟬賦」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깨끗하고 정절을 갖춤이 백이의 절개네. 황제와 신하가 모두 매미관을 쓰니 그 고결함을 받드는 것이네(皎皎貞素, 侔夷節兮。帝臣是戴, 尙其潔兮。)”라고 하였는데 매미는 군자의 상징으로 여러 문학작품에 사용되었다.

운 자연에 대한 설도의 지향은, 곧 비루하고 속악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설도는 끊임없이 그 어떤 가능성을 찾아 헤맨다.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을 때로는 비굴하게까지 표현하는 설도의 시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가능성을 끝없이 말하는 아이러니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3) 설도시에 등장하는 사천의 지명과 지역

설도는 사천에서 한평생을 살았던 인물이다. 憲宗 元和 2년(807년)에 武元衡은 劍南西川節度使로 부임하였는데, 그가 「題嘉陵驛」 시에서 사천에 이르는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고 한 것에 설도는 아래의 시로 답했다.

「續嘉陵驛詩獻武相國」(嘉陵驛詩에 이어 武相國에 드림)

蜀門西更上青天, 축땅에 들어오는 것 서쪽 하늘에 오르는 것처럼 험하니
強爲公歌蜀國弦. 막 도착한 그대를 위해 축땅의 민요를 불러 드립니다.
卓氏長卿稱士女, 이곳의 유명인으로는 卓文君과 司馬相如가 있고,
錦江玉壘獻山川. 이곳의 유명한 산천으로는 錦江과 玉壘山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잘 오셨다는 환영의 시이다. 설도가 노래하는 민요에서 당시 지역 풍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산천으로 錦江과 玉壘山을 말하고 이 지역 유명인사로 司馬相如와 卓文君을 언급한다. 이어 「鄉思」이란 시에서 다시 錦江과 峨眉山을 말하는데 玉壘山과 峨眉山은 각각 成都 동북과 동남에 위치한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다. 이 사이를 錦江이 흐른다. 이렇게 절도사 武元衡을 맞을 때 노래 부른 성도의 산천은 민요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하고 있지만, 「鄉思」에서 성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에게 다난한 삶을 펼쳐내는 고난의 공간이다.

「鄉思」

峨嵋山下水如油, 아미산 아래 강물은 기름처럼 흐르고,

憐我心同不繫舟。 내 마음 매이지 않은 배 같아서 가련하네.
何日片帆離錦浦, 언제 작은 배에 돛을 달고 금포를 떠나
櫂聲齊唱發中流。 함께 노래하며 중류로 나아갈까?

작품의 큰 즐거움은 고향 장안을 떠올린다는 것인데, 고향 땅에서의 소녀 시절을 떠올리는 것에서 성도에서의 기녀 생활이 고달팠음을 알 수 있다. 아미산 아래 강물은 기름처럼 잔잔히 흐르지만, 설도의 마음은 그 잔물결에도 가고자 하는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설도는 이제 그만 이 도시를 떠나 씩씩하게 뱃노래 부르며 고향 長安으로 가고 싶다.³³⁾ 이 작품에서 언급하는 錦浦는 成都의 별칭으로³⁴⁾ 成都는 설도에게 견뎌내야 하는 고난의 땅이자 그 고난을 이겨 마침내 단단해지는 삶의 무대였다. 이곳에서 설도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가련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어딘가에 정착하기 위해 이 포구를 떠나며 씩씩하게 뱃노래 부를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품는다. 이외에 玉壘山보다 좀 더 서남쪽에 위치한 靑城山 海棠溪에 대한 언급도 보인다.

「海棠溪」

春教風景駐仙霞, 봄은 풍경을 해당화 꽃노을로 펼쳐내니
水面魚身總帶花. 물가의 물고기도 꽃 빛으로 물드네
人世不思靈卉異, 세상 사람들 해당화의 오묘함은 모르고
競將紅纈染輕沙. 모래밭에 붉은 비단옷 입고 나와 꽃과 견주려 하네.

이 작품은 작가가 성도 서북쪽의 靑城山 海棠溪에 핀 해당화를 감상하고 쓴 시이다. 해당화는 사천의 명화로 예부터 이름 높았는데, 설도는 그 아름다움이 인간이 물들인 비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³⁵⁾ 사천은 비단과

33) 이 시에서 고향 장안은 실존을 구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없는 저곳에 있는 아려한 피안, 이상향의 표상으로 상징된다. 이는 장안에 대한 실존공간으로서의 감각적 체험이 시간의 흐름으로 지각적 체험으로 바뀌었기에 일어난 인식이다.

34) 이 지역에서 비단을 조정으로 진상하였기에 成都의 포구를 錦浦라고 하였다.

35) 絞纈은 베를 염색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四川의 비단 직조물은 蜀繡, 蜀錦이라 하여 예부터 지역특산물로 이름났었다. 설도는 이 시에서 이런 아름다운 비단도 자연 속 해당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수로도 유명했는데 제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자연의 해당화만 못하다고 말한다. 작품에서는 봄에 핀 아름다운 해당화가 물에 비춰 물고기 비늘에 꽃무늬를 드리우는데, 봄놀이 즐기는 붉은 비단 입은 사람들은 해당화의 아름다움을 깊이 알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의 기분에만 취해 그 색의 향연을 망친다고 말한다. 해당화 핀 계곡의 아름다운 풍광을 홀로 아는 듯한 시구에서 사천 해당화에 대한 설도의 섬세한 관찰과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분리하는 행위에서 작가의 소외감이 드러나기도 한다. 즉 설도의 시에서 海棠溪에 부여된 장소 정체성은 세상의 억압에 대항해 일어나는 작가의 비타협적 욕망이다. 이 욕망 때문에 누구보다 뛰어난 文才와 아름다움을 지닌 설도는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없는 독보적 아름다움을 지닌 해당화처럼 끝내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성도 북쪽에 위치한 斛石山³⁶⁾에 대한 언급이 「斛石山曉望奇侶侍御」와 「斛石山書事」에서, 성도 성내에 있는 연못 摩訶池³⁷⁾에 대한 언급이 「摩訶池贈蕭中丞」에서, 성도 서남쪽 錦江의 교각 萬里橋³⁸⁾에 대한 언급이 「和郭員外題萬里橋」에서 보인다. 또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凌雲寺³⁹⁾의 모습을 「賦凌雲寺」二首에 담고 있다.

36) 현재 成都市 북쪽의 鳳凰山을 가리킨다. 蜀漢 後主 劉禪이 이곳에서 활쏘기를 배워 學射山이라고도 한다.

37) 陳과 隨 시기 장군 蕭摩訶를 기려 이름 붙여진 연못으로, 현재는 말라버려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이 연못에 배를 띄우고 자주 연회를 열었다고 한다. 西川節度使 武元衡의 시 중에도 「摩訶池宴」이라는 작품이 있다.

38) 삼국시대 諸葛亮이 뚝나라 국가 사절로 떠나는 費禕를 전송했던 곳으로 비의가 “만리길 이 다리에서 시작된다(萬里之路, 始於此橋)” 말한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 杜甫草堂이 이 다리 서쪽에 있으며 두보의 시에서 “만리교 서쪽의 한 초당(萬里橋西一草堂)”이란 구절이 매우 유명하다.

39) 四川省 樂山縣에 있는 사찰로 大佛寺라고도 한다. 唐 玄宗 開元 중엽에 이 사찰의 주지스님 海通이 부처님의 힘으로 물살의 기세를 누르고자 71m 높이의 大磨崖佛인 落山大佛(凌雲大佛)을 세우기 시작했고 劍南西川節度使 韋阜가 이어서 완성하였다.

4) 설도와 관련한 사천의 유적지

사천성 成都에는 설도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한 곳 있다.⁴⁰⁾ 바로 望江樓公園인데 이곳에는 薛濤의 墓⁴¹⁾와 백색 옥으로 만든 薛濤像⁴²⁾, 작지만 알차게 꾸며진 薛濤紀念館이 있다. 이외에도 내부에는 浣箋亭, 淸怨室, 五雲仙館, 泉香榭, 流杯池 등의 건축물이 있는데 모두 설도의 일화와 관련한 이름이 붙여졌다. 成都 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錦江 바로 옆에 위치한 망강루공원은 약 3만 5천 평 규모로 또 130여 종의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공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살아생전 대나무를 좋아했다는 설도를 기려 함께 조성되었다고 한다.

(1) 薛濤井과 薛箋濤

사천지역은 당대부터 제지업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성도의 浣花溪라는 곳은 양질의 종이가 생산되는 곳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종이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짧은 편폭의 시를 쓰기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이에 설도는 木芙蓉 꺾질과 꽃즙으로 선홍색 종이를 직접 만들어 명사들과 주고받았는데 8행의 글자를 쓸 수 있는 작은 편폭의 이 종이는 당시 문사들에게 평판이 높아 薛濤箋 혹은 浣花箋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유행하였다.⁴³⁾ 동시대 문인 李商隱은 자신의 시 「送崔珏往西川」에서 “浣花의 종이는 桃花色(浣花箋紙桃花色)”이니 성도에 이르거든 시 지을 때 이를 사용하라 권하였고,⁴⁴⁾ 李洞은 「龍州送裴秀才」에서 “사람들은 새 蜀賦를 구함에, 浣花箋을 귀하게 여긴다(人求新蜀賦, 應貴浣

40) 사천성 성도의 문화적 유산을 지닌 공원으로는 望江樓公園, 白花潭公園, 杜甫草堂, 浣花溪公園, 桂湖公園, 東湖公園, 罨畫池公園 등이 있다. 傅可, 「成都公園藏著許多“文化大腕”」, 先鋒(05), 2021, pp.65~66.

41) 설도의 묘는 망강루공원 동쪽에 있는데 설도의 실제 무덤이 아니라 설도연구회가 고증에 의해 중건한 것이다.

42) 청대 光緒 29년(1903)에 세워졌다.

43) 『唐才子傳』卷六: “濤工爲小詩, 惜成都箋幅大, 遂摺制狹之, 人以便焉, 名曰薛濤箋。”

44) 林宇嬌, 「中晚唐時期成都地區的箋紙工藝發展研究——以薛濤箋爲例」, 『藝術研究』(04), 2021, p.6.

花箋。)”며 이 지역 사람들이 작품을 지을 때 설도전을 사용함을 언급하였다. 동시대 문인들에게도 설도전은 성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浣花溪 외에 望江樓公園에는 당시 설도가 설도전을 만들 때 물을 길었다던 우물 薛濤井도 조성되어 있다. 설도정 아래 돌비석⁴⁵⁾에는 청대 成都의 通判을 지낸 汪雋이 새겨 넣은 王建의 시 「寄蜀中薛濤校書」가 있다.⁴⁶⁾

(2) 薛濤紀念館과 吟詩樓

설도기념관 내부 벽면에는 설도의 모습과 「春望詞」 제4수가 쓰여 있는데 당시 설도와 교류했던 백거이, 유우석, 원진, 두목 등 당대의 이름있는 문인들도 함께 그려 놓았다. 吟詩樓는 설도가 만년에 시를 읊기 위해 지은 成都城 서북쪽 碧溪坊의 누각을 말하는데, 원래의 누각은 이미 소실되었고 청대 嘉慶 19년(1814) 후인들이 설도를 기리기 위해 새로 지은 것이다.

설도와 관련한 사천의 유적지도 최근에 문화사업자원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성도에서는 망강루공원 내에 설도와 관련한 기념관과 음식루 등을 건축하고 성도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30여 종의 대나무를 심어 은일과 풍류의 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설도라는 인물과 그녀가 남긴 시작품들을 다양하게 변용하고 있지는 못하며, 유명 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작가를 소개하고 있는 한계도 보인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청조와 설도를 중심으로 고대 여성작가의 지역 문학 공간에서 드

45) 이 비석은 청 康熙 3년(1664) 3월에 성도의 지사로 있던 冀應熊이 세운 것이다.

46) 이 시는 王建(766~?)의 『王仲初集』에 실려 있는데 武元衡이 元和 2년(807) 劍南西川節度使로 있을 때 왕건이 무원형을 통해 설도와 이 시를 唱和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설도, 『설도시집』, 류창교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꾼다. 작가에게 그러한 세계는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청조와 설도가 작품에서 그려낸 景物과 性情은 자신의 구체적인 생존공간과 결부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작가가 살았던 장소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창작의 원천이 된 지역의 경관과 경물, 이를 통해 드러난 작가의 심경을 살펴볼 수 있다면 좀 더 다채로운 작품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청조 사의 창작 원천은 산동의 물과 술이 담고 있는 ‘흐름’의 사유와 고향 땅을 토양으로 하는 ‘실존 의식’ 즉 참된 삶에 대한 갈구였고, 설도 시의 창작 원천은 풍요로운 성도 땅에서 늘 결핍을 자각하는 작가의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에 있었다.

또 지역 문학으로 이청조의 사가 南渡한 산동문인들의 ‘실존 의식’ 혹은 ‘정체성 회복에의 회구’라는 집단 정서를 대표하고, 특히 ‘흐름’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특징을 지닌다면, 지역 문학으로 설도의 시는 풍요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타고 났지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었던 사천 기녀의 ‘갈증’과 ‘처세’를 소재로 하고, 이런 이유로 작품 속에 표현된 설도의 자아상은 시종일관 사천 대나무 같은 ‘꿇꿇함’을 지닌다.

參考文獻

- 김명희·정은임편저, 『동아시아문학과 여성』, 서울: 새미(국학자료원), 2005.
- 고려대중국학연구소, 『중국지리의 즐거움』, 서울: 차이나 하우스, 2017.
- 설도, 『설도시집』, 류창교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에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서울: 논형, 2005.
- 장석주, 『장소의 탄생』, 서울: 작가정신, 2006.
- 전종한·서민철·정의선의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 曹正文, 『중국여성 문학의 숲을 거닐다』, 조성환역 서울: 차이나하우스, 2016.
- 齋藤茂, 『妓女與文人』, 申荷麗譯, 北京: 商務印書館, 2011.
- 宋致新, 『長江流域的女性文化』, 武漢: 湖北教育出版社, 2004.
- 唐圭璋, 『全宋詞』 卷二, 北京: 中華書局, 1998.
- 沈榮森, 「李清照酒詞淺探」, 『東岳論叢』 24(1), 2003, pp.118~120.
- 傅 可, 「成都公園藏著許多“文化大腕”」, 先鋒(05), 2021, pp.65~66.
- 林宇嬌, 「中晚唐時期成都地區的箋紙工藝發展研究——以薛濤箋為例」, 『藝術研究』 (4) 2021. pp.6~7.
- 盧 娜, 「淺析章丘清照文化地方課程資源的開發與利用價值」, 『娜湖北經濟學院學報』 13(10), 2016, pp.120~122.
- 劉洪志·賈玲利·杜宇, 「四川古典園林中的竹文化研究」, 『中國城市林業』 14(5), 2016, pp.41~44.
- 徐有富, 「李清照泛舟詞之比較」, 『名作欣賞』 (31), 2019, pp.111~113.
- 張穎欣, 「濟南大明湖的淵源及“泉文化”」, 『科技創新導報』 (29), 2009, p.229.

Abstract

Regional and Chinese Ancient Women Writers' Poetry I

- Focusing on Li Qingzhao(李清照) from Shandong Sheng(山東省) and Xue Tao(薛濤) from Sichuan Sheng(四川省)

Yun, Hye Ji

This study tried to examine Li Qingzhao and Xue Tao's regional literary space from the viewpoint of literary geography. Li Qingzhao's Ci(詞) writing motive hungered for reason of the 'flow' contained by water and alcohol from Shandong and 'existential consciousness' which makes her hometown soil, that is, true life. The main motive of Xue Tao's poetic creation 'hungered for' what she could not accomplish by being conscious of lack in a fertile land of Chengdu.

And as regional literature, Li Qingzhao's Ci(詞) represents collective emotions called 'existential consciousness' or 'desire for restoration of identity' of the writers from Shandong who fled to the south and especially, it is based on delicate sensibility of the 'flow'. But as regional literature, Xue Tao's poetry(詩) makes 'thirst' and 'worldly wisdom' of the prostitute from Sichuan who could not have what she wanted in spite of having an instinct for everything in the fertile land a subject. For this reason, Xue Tao builds a firm self-image like bamboo trees in Sichuan from beginning to end in her works.

Key words : Chinese Women Literature, Chinese Poetry, Human Geography, Li Qingzhao, Xue Tao.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

